

연등회 어울림마당을 알리는 율동이 동국대에서 화려하게 펼쳐졌다.


연등행렬이 출발하기 전 연희단의 춤사위는 불자들과 시민들의 흥을 돋웠다.


1년간 정성껏 준비한 봉축율동을 선보이는 불자들의 모습이 신나 보인다. 맑은 날씨와 함께 펼쳐진 이날 어울림마당은 환희로 가득했다.

웃고 춤추니 여기가 차별없는 불국정토

불기 2561년 연등회는 그야말로 인종과 국적, 나이와 장애를 모두 뛰어넘는 어울림 마당이었다. 10만개의 연등이 도심을 수놓고, 그 불빛 아래 모든 사람들은 한마음이 됐다.

먼저 동국대에서 열린 어울림한마당에서는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나투신 모습을 봉축율동으로 찬탄하는 환희 가득한 행사가 진행됐다. 이어 동대문부터 서울 조계사까지는 '차별없는 세상' 구현을 위한 연등회 제등행렬이 펼쳐졌다. 행렬 선두에는 부처의 가르침을 수호하는 사천왕상과 지혜를 상징하는 코끼리 등을 본 딴 거대한 장엄등이 앞장을 섰으며, 한반도와 무궁화 등, 각종 캐릭터 등도 선보였다. 연등회의 대미를 장식하는 회향한마당에서는 5000여 시민들은 연등회의 마지막 일정인 문화공연을 즐기고 함께 춤추며 아쉬움을 달랬다. 이날의 환희심 넘치는 현장을 화보로 전한다.

글/사진=윤호섭 · 박아름 기자, 박재완 객원기자


연등회 어울림마당에서는 어린이 연희단원들이 귀여운 율동을 선보여 박수갈채를 받았다.


'얼쑤!' 한바탕 신명이 가슴을 벅차게 한다.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춤사위를 펼치는 불자들의 모습이 아름답다.

종정 월산 청암



동대문부터 조계사 앞까지 펼쳐진 연등회 제등행렬에는 30만명이 참여해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했다. 화려한 연등과 함께 풍물소리와 춤이 종로 거리에서 펼쳐졌다.



4월 30일 조계사 앞길에서 열린 전통문화마당서 관불의식을 하는 어린이의 모습이 해맑다.



회향한마당에서 꽃비가 내리고 외국인과 시민들의 가슴은 환희심으로 가득찼다.



이번 제등행렬에는 태국불자들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 불자들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태극기등과 독일등 등 다양한 각국 연등을 든 스님과 외국인의 모습이 흥미롭다.



행렬에 참여한 젊은 부부와 어르신. 연등회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함께한 어울림 마당이었다.

불기 2561 (2017)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같이
차별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

부처님 오신날 연등 밝히는 것을 스승으로 삼으소서

봉 화합불교의 일불제자 구현 (사)호국불교조계종 축

중앙종회의장 일봉 (포항 남구 오천읍 관음사, 011-508-3100)
교 육 원 장 봉덕 (거창읍 증산길 봉덕암, 010-8582-1308)
중앙비구니회장 창회 혜명 (부산진구 부암동 백광사, 010-4751-3806)
대구종무원장 의광 (대구 서구 평리동 약사사, 016-9886-0860)

(社)護國佛教曹溪宗 총무원장 유심 성도 jogyejong.kr

입종을 환영합니다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해 함께하실 종도님을 환영합니다. 불조의 혜명을 바르게 전하는
청정수행에 함께하여 참 승가의 길을 걸어갑시다.

총무원 : 부산 중구 중앙대로231번길 16 부산역앞 관음정사 전화 051)468-5657 / 팩스 051)442-5659 / 모바일홈페이지 http://m/jogyejong.kr
부설단체 051)442-5658 / 수산대학병원시신 및 장기기증모임 / 한국대승불교실천연합